

“정권 심판하자” vs “일당독점 깨자” 광주 여야사전투표 독려

민주 “정권 심판 사전준비날” 국힘 “민주 독점이 성장 멈춰” 진보 “8석 중 기적의 1석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광주지역 여·야 주요 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투표율을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은 이날 광

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6일 사전투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사전 준비의 날”이라며 “윤석열 2년, 잠 깨보니 후진국이다.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파탄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후보들은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광주시민의 선택이 민주당 혁신공천 바람을 이끌어 냈다”며 “그 바람이 서울에서, 충청에서, 그리고 부·울·경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일당독점 구도를 깨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선택이 기이하게도 한 곳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난 결과 광주의 성장은 멈췄다”며 “이번 총선에서 정당을 떠나 어떤 후보가 광주 발전을 견인해 낼 인물인지 한 번 더 숙고해서 투표하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의 ‘내로남불’은 어김없이 드러났고, 여전히 민심이 역행하고 있다”며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민주당의 광주·전남 경선은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온갖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광주 후보자들도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심판과 광주의 자존심을 위해 광주 8석 중 1석은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이미 야권의 압승이 예견되고 있다. 이제 전국이 광주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며 “지금도 광주를 바꿀 절호의 기회다”고 지지를 부탁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는 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소는 각 읍·면·동별로 1곳씩 광주 96곳, 전남 298곳에 설치했다.

오유나기자

‘사전투표율 역대 1위’ 전남 22대 총선에도 가장 높을까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5-6일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 도입 이후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던 광주·전남지역 사전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광주·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소는 각 읍·면·동별로 1곳씩 광주 96곳, 전남 298곳에 설치했다.

전남은 사전투표가 전국선거로 처음 도입된 2014년 6월 지방선거부터 7번에 걸친 선거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17개 시·도 중 사전투표율 1위를 차지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2017년 대선은 세종특별자치시가 1위, 전남이 2위였다.

전남의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2016년 20대 총선 18.85%, 2020년 21대 총선 35.77%로 모두 1위다. 광주의 사전투표율은 제도 도입 이후 19-20대 대선에서 각각 3위, 20-21대 총선에서 각각 4위를 기록했다.

세번의 지방선거에서 전남은 모두 1위를 차지한 반면 광주는 5위(제6회 지방선거)에서 6위(제7회 지방선거)로 떨어졌다가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6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광주·전남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민주당 일당독점 구도 탓에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사실상 당락 여부가 결정되고 선거 이

슈도 사라져 본 투표장에 갈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 기조가 강한 데다 조국혁신당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사전투표율은 물론 본 선거 투표율도 높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 외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당독점 구도에 반감을 가진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투표를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갈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광주·전남의 높은 지지율은 정권 견제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뉴스1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광주MBC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광주 동남을, 광산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를,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4개 관심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적극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0.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고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을 더하면 투표 의향률은 94.8%에 이른다. (코리아리서치, 조사방법 휴대전화 안심번호 100% 전화면접, 응답률 동남을 20.8%·광산을 16.9%·담양·함평·영광·장성 22.6%·순천·광양·곡성·구례를 21.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선욱기자

‘최고 320km/h’ KTX-청룡, 서울~부산 2시간10분대 주파

최고속도 320km/h...국내 가장 빨라 용산~광주송정 1시간30분대로 이동

KTX 개통 20주년을 기념해 모습이 공개된 KTX-청룡(EMU-320)이 내달 1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배치된다. KTX-청룡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시속은 320km/h로 서울~부산의 소요시간은 2시간 10분이 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의 운영을 시작하는 KTX-청룡은 현재 2편성이 도입됐다.

최고속도는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국내기업인 현대로템에서 제작했다.

KTX-청룡은 국토부가 차세대 고속철도 연구개발(2007~2015)을 통해 100%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기존 KTX에 적용된 동력집중식보다 우수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력분산식은 앞차와 뒤차에 동력이 있는 동력집중식과 달리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열차를 말한다.

300km/h 도달시간은 KTX-산천이 5분16초인데 반해 KTX-청룡은 3분32초로 KTX-산천과 비교해 1분44분 더 빠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월부터 두 차례에 걸친 대국민 열차명칭 공모를 거쳐 총 9192건의 후보안 중에서 네이밍 개발 및 브랜드 전문가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전역에서 열린 차세대고속열차 명명식에서 열차 공식 명칭인 ‘KTX-청룡’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문을 거쳐 KTX-청룡으로 최종 이름을 선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에서 KTX-청룡(CHEONG-RYONG)으로 명명했다.

국토부는 KTX-청룡을 내달 1일부터 경부와 호남선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은 2시간10분, 용산~광주송정은 1시간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급행 고속열차 시대’가 개막하게 된다. 운행시 일 편도 2회→6회로 확대 운행할 예

정으로, 경부선은 일 4회, 호남선은 일 2회를 운행한다.

KTX-청룡은 8량 1편성으로 길이는 199.1m, 차체폭은 3.15m이다.

좌석은 515석으로 비슷한 크기의 KTX 산천과 비교해 136석, 산천Ⅱ 대비 105석이 많다. 코레일은 주말에는 선로용량 등을 감안해 경부선에 두편성의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열차를 운행해 공급좌석이 300석 증가될 예정이다. 이슬비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월 5일(금) ~ 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수많은 땀방울이 모여 지켜지는 소중한 권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정책·공약 확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